

광주시장·전남지사 송년 기자회견

“일자리·문화·인권 융합한 행복 복지도시로”**강운태 광주시장**

강 시장은 또 “새 해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와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2015 국제지자인연맹총회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광주가 보유한 사회적 자산과 정책수단을 창의적으로 재설계해 일자리·복지·문화·인권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광주형 행복복지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등산과 함께하는 광주시민 축복받았다
세계인의 산 될 수 있도록 소중히 가꿔야”****박선홍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고문**

“무등산이 광주시민과 한국인의 것을 넘어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전일빌딩 6층 사무실에서 만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박선홍(87) 고문은 무등산이 국립 공원으로 승격됐다는 소식에 한껏 뜀떴다.

1926년 광주에서 태어난 박고문은 1950년대부터 무등산보호활동을 시작해 1955년 전남산악회를 결성하는 등 현재까지 약 60여년간 무등산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 박 고문은 특히 1976년 무등산의 역사와 풍속, 유적, 유물, 동·식물 등 모든 것을 담은 ‘무등산’이란 책을 펴냈으며, 2012년 현재까지도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다.

박 고문은 “무등산이 국립 공원으로 승격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무등산이 광주를 넘어 세계인의 산이 되길 바란다”

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눈을 감으면 어찌나 하고 걱정했는데 드디어 승격돼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박 고문과 무등산의 인연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고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무등산으로 소풍을 다녀온 뒤 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됐다”면서 “이후 무등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산에 대해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박 고문은 무등산의 가장 큰 매력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중에서도 입석대에 펼쳐진 주상절리대를 꼽았다.

박 고문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 정상 주변에 입석대와 같은 주상절리대가 펼쳐진 것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희귀한 것”이라며 “이러한 무등산과 함께 생활하는 광주 시민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강운태 광주시장의 열정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무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 공원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강운태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무등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고문은 무등산 보호를 위한 조언도 내놨다.

박 고문은 “산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의 손을 닿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케이블카, 등산로 설치 등에 반대하며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와 방송·통신시설들로 하루빨리 이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무등산 보호를 위한 조언도 내놨다.

박 고문은 “산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의 손을 닿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케이블카, 등산로 설치 등에 반대하며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와 방송·통신시설들로 하루빨리 이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세기자 hot@kwangju.co.kr

“생태관광·귀농정책으로 도시민 끌어들일 것”**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는 27일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농수축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을 회고하고 ‘2013년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농업·농업인·농촌을 함께 살려내는 3농(農) 정책으로 농어촌에는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신년에도 생태관광과 귀농정책으로 도시민을 끌어들이는 한편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인구를 적극 유입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도전의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을 주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녹색축산 등에 주력해 수도권 등 대도시는 물론 중국의 잘 사는 1억, 일본 2억명을 겨냥한 ‘고급 식당’을 선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찍 땅(간척지)을 줬더라면 진즉 시작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이미 외국인 투자협약이 이뤄진 곳도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래 식량자원의 보고(寶庫)인 바다경영 강화 ▲F1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영광원전 주민대책 등을 통한 복지 전남, 안전 전남 구현 등을 내년도 주요 도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MIG’ LED 제품 첫 美 수출

(Made In Gwangju)

삼진엘앤디 광주공장, 빌보드 투광기 300대·가로등 50대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광산업 도약방안 모색 차원에서 추진해 온 LED 조명제품 미국 수출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광주시는 27일, 평동산단에 있는 삼진 엘앤디 광주공장에서 강운태 시장과 이경재 삼진엘앤디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LED 빌보드 투광기 미국 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수출 제품은 광주 공산업 육성 10년 성과를 집약해 브랜드화한 MIG

빌보드 투광기 300대와 LED 가로등 50대로, LED 조명제품 대미 수출프로젝트 추진으로 확보된 계약량의 첫 물량이다.

이는 지난해 미국 측과 수출협약 체결 이후 기술적 사양에 대한 변동성이 심한 미국 시장의 요구를 충족한 것이어서 내년부터는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출 제품은 광주 공산업 육성 10년 성과를 집약해 브랜드화한 MIG

(Made In Gwangju) 제1호를 획득한 것 이어서 향후 MIG 브랜드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 공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강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단을 구성,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및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쳐왔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재, 선거법상 사후 매수죄 합헌 결정**곽노현 前서울교육감 현법소원도 ‘무죄’****국회 사무총장에 정진석 실장 내정**

강창희 국회의장은 새 국회 사무총장에 정진석 (52·사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1999년 자민련

명예총재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부친 정석모 전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연기에서 첫 베지를 달았다. 18대까지 내리 3선을 했으며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국회는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 내정자에 대한 임명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지법,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1월말 선고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자본구조 변경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와 민자사업자 간 소송 결과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7일 민자사업자가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심리를 갖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31일로 잡았다.

이날 심리에서 원고인 사업자는 “도로의 정상적인 시설에는 문제가 없으며 자금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주주의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광주시는 “도로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기본구조를 당초대로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

한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 사퇴가 대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대가는 비례하는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과는 무관하다”

며 위원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특전부사관과도 역사
조선이공대학교**

2012년 졸업생 100% 취업 부사관 80% 임관
2012년 특전부사관 군장학생 선발시험 전국 최다 합격
특전부사관 및 육해공군 부사관 동시 지원 가능 100% 보장
부사관 학과 중 납부금 가장 저렴 각종 장학금 혜택
교수 3명 전원 특전사 대령 출신으로 맞춤식 교육

2012년도 부사관 합격자 명단

2학년	육군 부사관 여군	이*진, 이*빈, 임*룡, 범*은, 김*혜 (5명)
2학년	특전 부사관 203기	정*현 (1명)
2학년	특전 부사관 사전선발(204기)	
2학년	시전선발 대상자는 2학년 전학기 국비·장학금 지급	
2학년	면*진, 안*성, 김*훈, 최*석, 박*훈	김*주, 김*우, 김*현, 김*길
2학년	전*현 (10명)	
2학년	특전 부사관 사전선발(예비)	
2학년	김*성, 정*훈, 김*수, 정*하, 윤*찬	김*윤, 정*현, 양*민, 김*현, 박*석, 이*례, 소*영, 김*현, 유*재이*현, 김*수, 이*한, 이*한 (10명)
2학년	특전부사관 여군 203기	
2학년	전국최초 특전부사관 학과 출신 김*정 (1명)	

연락처 062-230-8920(학과실) 010-5339-9666(이성춘교수)

취업과 병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온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에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판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민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민두수)로 수십년을 묵을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인내해,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로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혼령)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자곡리 95-2
(광주남성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금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50년 전통 대를잇는 학원**북경당 한의원****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